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최 현 진

2016년 2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指導教授 金 惠 淑

崔 玆 進

이 論文을 家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2月

崔 玆 進의 家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2月

목 차

목 차	i
표 목 차	iii
국문초록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부모와의 갈등	6
2. 사회심리적 웰빙	13
III. 연구방법	25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5
2. 연구절차	26
3. 측정도구	26
4. 자료분석	28
IV. 연구결과	29
1. 성별, 학교 급별에 따라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 의 차이	29
2.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심리사회적 웰빙의 일반적 경향	32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의 상관관계	33
4.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심리사회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38
V. 결론 및 제언	40

1. 요약 및 결론	40
2. 제언	44
참고 문헌	45
Abstract	50
설문지	53

표 목 차

<표 II-1> 심리적 웰빙의 6가지 차원	21
<표 II-2>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안녕감 척도	23
<표 III-1> 연구대상의 성별, 학교 급별 특성	25
<표 III-2> 부모와의 갈등 척도	27
<표 III-3> 사회심리적 웰빙 척도	27
<표 IV-1> 성별과 학교 급별에 따른 부모-자녀의 갈등의 차이	30
<표 IV-2> 학교 급별에 따른 부모와의 갈등 하위요인	31
<표 IV-3> 성별과 학교 급별에 따른 사회심리적 웰빙의 차이	32
<표 IV-4>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심리사회적 웰빙의 평균과 표준편차	32
<표 IV-5>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심리사회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34
<표 IV-6> 중학생의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심리사회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36
<표 IV-7>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심리사회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37
<표 IV-8> 진로 및 성적 갈등, 일상생활갈등, 가족관계 갈등이 심리사회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39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의 변인 간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4
<그림 2> 심리적 웰빙의 구성요소와 이론적 배경	16

<국문초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이 심리사회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최 현 진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숙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제주도내 소재의 중·고등학교 남·여 학생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자료의 검정에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성별, 학교 급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웰빙의 차이는 부모와의 갈등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 및 성적, 미디어사용, 일상생활,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사회적 웰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 급에 따른 부모와의 갈등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진로 및 성적, 미디어사용, 일상생활,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심리사회적 웰빙은 학교 급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심리사회적 웰빙의 일반적 경향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은 일상생활 갈등이 가장 높았고, 진로 및 성적 갈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긍정적 자기 인식이 가장 높고 자기주장성, 가족관계, 교사관계는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및 하위요인과 심리사회적 웰빙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심리사회적 웰빙은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웰빙도 낮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미디어 사용 갈등은 심리사회적 웰빙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미디어 사용 갈등이 높을수록 가족, 교사 및 친구관계와 관련된 웰빙이 낮았다. 진로 및 성적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웰빙이 높음을 의미하며, 특히 교사 및 친구관계와 관련된 웰빙이 높음을 의미한다. 심리사회적 웰빙의 하위요인과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 교사관계, 친구관계 모두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관계 요인이 낮을수록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넷째,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심리사회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은 가족, 친구, 교사, 친척들을 포함한 주위 인간관계에 대해서 개인이 지지체제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으며, 일상생활의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웰빙 수준이 높고, 낮을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많다. 또한 진로 및 성적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웰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웰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현재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심리적 웰빙에 관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부모와의 갈등 상황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심리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부모와의 갈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생활을 즐겁고 의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실제적인 이해와 사고방식, 가치관 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정 내 자녀와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은 인간이 처음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공동체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본적 단위이다. 이를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가족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청소년이 성장해 가면서 필요한 다양한 가치관과 규범, 사회화 능력, 인성 발달을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가정에서 습득한 사회성과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며 전생애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적 시기로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최지은, 2001)를 겪게 된다. 이 시기에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 특히 기본적 생활공동체인 가족 내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고조된다. 이 때 발생하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면 가족 내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자살, 약물 중독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갈등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지 못할 때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이수국, 2013).

청소년들과 기성세대 간의 갈등은 가치관 충돌, 신체조건의 변화, 진로 선택 등의 문제로 이전에 비해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범죄행위, 약물남용, 자살 등과 같은 비사회적 행동(김진화, 2002)을 하게 된다. OECD 31개 국가 중 한국의 '아동청소년'(10~24세)의 자살률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6.4명에서 9.4명으로 47% 급증하였으며, 이는 칠레 57%에 비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1).

청소년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하는 청소년의 개인 병리적인 현

상도 있지만, 외부환경에 의한 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 학교, 사회적 관계, 학업 등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국내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가족관계 및 친구 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한건환, 2004)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아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에서도 부모와의 갈등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이나 웰빙을 위협할 수 있다. 부모와의 갈등이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구본용, 신현숙, 2002; 김현수, 김현실, 1997; 김의철, 박영신, 2000, 2004; 오영희, 2004)에서 밝혀졌다. 특히 관계문화가 발달된 한국은 청소년의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데,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부모에게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종속되어 있기 싫어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삶을 열망(나영숙, 2009)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게 된다. 또한 부모-자녀갈등은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청소년은 자신의 생활을 이해받으려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로 하여금 자연적인 발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부모-자녀와의 갈등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심리적 웰빙은 한 개인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등의 개념 중 중심적인 개념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인지적, 정서적 상태(전양자, 1991)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고 행복감이 낮은 원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학습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 외모 지상주의, 또래들과의 비교 의식, 학교 폭력 및 또래 관계 문제, 가정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자녀 갈등이 높으면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내재적 문제행동과 더불어 폭력 따돌림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도 높아진다(김태욱, 2011; 이주옥, 1994)고 한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학업, 진로, 심리적 안정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아동기, 성인기에 비해 부모-자녀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로서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김기형(2005)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적응 요인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적응의 세 변인 모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부모-자녀 갈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 중학생이 부모자녀 갈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영숙, 2009). 하지만 최근 개인내적인 심리적 안녕감에서 벗어나 사회 환경 내에서의 개인적 만족감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심리적 웰빙이 대두 되고 있다. 사회심리적 웰빙에 대해서 박정희(2007)는 자기 개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 행복, 질병이 없는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을 사회심리 웰빙이라 하였으며 어떠한 행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현재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부모와의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사회심리적 웰빙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성별, 학교 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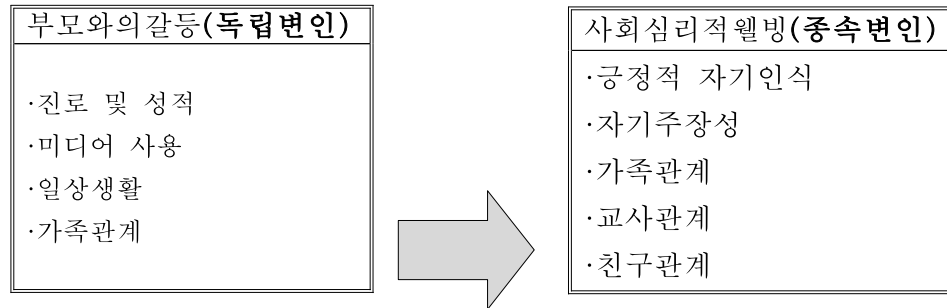
이에 이 연구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부모와의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장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내 지각된 부모 갈등에 따라 사회심리적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의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긍정적 자기

인식, 자기 주장성,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하위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림1>의 연구 모형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변인 간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을 성별, 학교 급별로 알아보고 사회심리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성별, 학교 급별에 따른 사회심리적 웰빙에 차이가 있는가?
- 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문제 3.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에서는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의 연령으로 한정하고 있다. 통념적으로 학교 제도상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시기인 14세부터 19세까지를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2) 부모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갈등은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욕구 표현의 일부분이며 서로 조율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 양상을 보면 이영나(2000)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갈등을 조사하였는데, 학업과 진로, 용돈, 부모의 불이해, 컴퓨터·핸드폰 사용 등의 순서로 두 집단이 비슷한 순위의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갈등을 진로 및 성적, 미디어 사용, 일상생활, 가족관계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심리적 웰빙

개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 행복감, 질병이 없는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을 사회심리적 웰빙이라고 하며, 어떠한 행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현재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박정희, 2007)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웰빙을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5가지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와의 갈등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어떤 부모, 어떤 훈육, 어떤 가정환경에 접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행동과 특성은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으로 묘사하며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이다. 이처럼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는 그 자신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요인이고, 가족의 분위기나 크고 작은 문제들의 가족 갈등은 청소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류승희, 2001).

대개 가정에서는 청소년의 의사결정권, 자율적인 행동 범위 등에 관한 규범이 정해져 있다. 미성년자이기에 주로 부모는 일방적인 생각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자녀는 결정에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김양희(1991)는 갈등이란 “가족 내에서 권위와 경제적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가족성원들 사이의 마찰로서 갈등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 즉 긴장감에서 부터 표출적인 행동으로서, 말다툼이나 폭력의 사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대해 정의한 것을 살펴보면 이주옥(1993)은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서로 상처되는 가정 내의 위치와 견해 및 이해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로써 말다툼이나 폭력 사용 등 외현적 행동에서 부터 내적 긴장감까지를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발생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전통사회에서는 친족집단 중심으로 단위가 대가족이었으나,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현대가족은 부부중

심의 핵가족으로 대표되는 소단위 가족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상실되고 가족구성원 간에도 세대차가 심해짐에 따라 가족 내의 갈등과 함께 부모와 자녀들 간의 소외감정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와 도시사회로 발전하면서 가정교육의 기능약화, 이혼율의 증가, 가정의 통제력 약화, 대중매체의 가정생활 지배를 가져왔으며 가족규모의 감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가정교육의 기능약화와 통제력 약화는 가정이 더 이상 규범적 준거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행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와 스마트폰의 보급화는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면서 부모-자녀의 갈등은 끝이 점점 더 깊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아동기와는 달리 부모에게 의존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변화하고자 하여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기를 싫어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삶을 열망하기 때문에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 갈등(나영숙, 2009)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청년기에 들어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사회규범을 따르도록 가르치려는 의도이므로, 이들 간의 의견 차이는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3)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1,238명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로서의 지식이나 자질의 구비정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충분하다’고 대답한 어머니는 단 7.6%에 불과하였으며, 87.3%에 달하는 어머니가 ‘다소 부족하다(59.0%)’거나 ‘많이 부족하다(28.3%)’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를 지도할 때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질문한 결과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과 자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42.0%로서 다른 이유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이었다. 이는 교육에 대한 지식의 문제도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청

소년들이 가지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 증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변화와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문경주, 2004)고 보고한다. 이는 자율성 영역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지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청소년은 개인적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해 부모는 윤리적, 관습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지각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보다 많은 자율적 의사결정 권한을 획득하길 원하는 반면, 부모는 청소년의 증가된 욕구만큼 자율성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각의 차이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장재선, 2009). 이것은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려는 자아(自我)가 성인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청소년 자신의 가치 및 이상과 부합되는 기성세대의 가치·제도·관습을 강요당할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신적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와 탈출구를 찾으려 한다(이권오, 2004).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면화 시키는 자녀와 자주 다투게 되는데, 이 시기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강하게 피력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견과 주장이 부모의 의견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자녀들은 의존과 독립의 욕구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차츰 부모로부터 독립해 간다. 그리고 부모는 이러한 자녀들의 독립을 견제하며 권위를 행사해서 자녀들을 보호(임지훈, 2010)하려고 한다.

청소년기의 갈등은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부모-자녀갈등은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의 욕구표현이며 서로 조율하는 방법을 터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감정을 부모에게 폭언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김태욱, 2010). 이에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통제하게 되고 자녀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입장과 차이가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이론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부모-자녀의 관계를 긴장과 갈등의 관계로 보는 관점으로 순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갈등의 관계를 보는 관점과 부모-자녀의 관계를 상대적인 조화를

이론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집단의 유지와 균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첫 번째 관점에서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를 긴장과 갈등으로 보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사회와 역사적 시기에 태어나고 양육 되어진 결과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즉 부모는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양육될 때 습득한 내용과 규범을 적용하기 마련인데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해 부모가 적용한 지식의 많은 부분이 청소년에게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이주옥, 1993)고 생각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세대 간의 긴장이 있음으로 가정 내에 질서와 규범이 유지된다고 하였으며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견딜 수 있도록 도움과 지도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부모(Arroba, 1977; 이영나, 2000. 재인용)라고 주장하였다. 즉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반항과 적개심이 증가하는 시기로, 부모와의 갈등과 분리는 청소년기의 자연적인 특징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Deutsch(1976)에 의하면 갈등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평가해 보는 과정의 한부분이라고 하여 갈등을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다양한 의견 충돌은 여러 가지 다른 사고 통찰력 그리고 준거의 틀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생각이나 사고를 낳게 한다고 하여 갈등의 순기능적인 면을 강조 하고 있다(한규석, 2009).

또한 Rice(1979)는 갈등은 현실에 대해 우리가 항상 다시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결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동안 우리는 상대 가족원의 가치나 신념들이 자신과 다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면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적 감정(negative feeling)을 순화시킨다는 면에서 갈등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였다(김태현, 1999). 특히 Sprey(1971)는 가족구성원들의 목표나 목표에의 도달 수단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과 주의력을 집중 시키고 있다는 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집단으로서의 가정이 성장하는데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갈등의 긍정적 가치를 지지 해주고 있다(손석훈, 1984).

사실 이전에는 갈등문제를 부정적 정서, 강요, 개입, 공격성, 관계약화 등의 부

정적 요인으로 간주해 왔으나, 갈등을 타협, 논박(reasoning),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관계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동반하여 건설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김태옥, 2011). 따라서 부모-자녀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은폐하거나 회피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갈등은 불가피하면서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원활한 갈등 해결을 위한 가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을 자연스러운 과정 자체로 받아들이고 상호간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문충배(1988)는 중학생 1, 2, 3 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한 응답자가 남학생 37.7%, 여학생 37.6%로 대체적으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와의 의견 충돌 정도는 아주 심하지 않지만 비교적 있는 편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의견 충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김종환(1981)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련(2013)의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 빈도 및 강도가 남자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숙자(2014)는 부모-자녀갈등을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안병조(1983)의 남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이성교제와 경제문제에 많은 갈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경주(2004)는 초기 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의 갈등이 대체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수연(1996)도 어머니-청소년 자녀 간의 갈등 정도에 있어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 남녀는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와의 갈등 정도를 비슷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옥(1993)은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은 학교성적, 학교생활, 친구관계, 집안일, 용돈 사용, 귀가시간, 부모에 대한 불복종 등 현실적이고 일상적

인 가족문제와 관련이 있었고,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학업 성취와 관련된 갈등이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인 경우에는 학업 성취 뿐만 아니라 행동특성, 행동규제, 집안일 등 다양한 갈등의 유형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보아 부모-자녀 갈등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나타낸다.

학교 급별에 따른 변인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문경주(2004)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더 높게 지각한 바 있다. 이권오(2004)의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갈등의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 갈등의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일탈학생의 연령층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나영숙(2009)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중학생이 부모자녀 갈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나(2000)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갈등은 두 집단 모두 학업, 진로, 용돈, 부모의 불이해, 컴퓨터/핸드폰 사용 등의 순서로 서로 순위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자녀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임지훈(2010)은 직접적인 부모-자녀갈등이 아니더라도 가정 내의 다양한 갈등 상황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갈등을 만들게 되고, 그러한 갈등은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과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귀연(2006)은 부모-자녀갈등 원인으로 소비행태와 사회생활과 같은 일상적 문제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원인은 개인의 위생문제, 불복종, 학교과제, 사회활동, 친구관계, 가정의 잔일, 형제와의 다툼 등을 포함하며,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경제적 사유로 인한 갈등으로는 용돈 문제, 옷 구매 문제 등 소비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영나(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갈등은 모두 학업, 진로, 용돈, 부모의 불이해, 컴퓨터·핸드폰 사용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백미숙(2000)은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자녀갈등 정도는 성적, TV, 취침, 성격, 형제, 용돈, 청소, 친구, 옷차림 순으로 갈등이 나타났다. 김태욱(2011)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의 언행과 훈육이 불일치 할 때 나 부모가 자녀를 편애할 때, 문제행동을 유발하기 쉬우며, 부부간

불화, 가족 간 폭력이 수반되는 가족의 갈등적 분위기, 주거환경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오영희(2007)는 부모-자녀갈등을 자녀가 부모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는데서 부정적인 갈등이 발생하며, 부당한 대우에는 부모의 무시, 불신, 실망, 형제간의 차별, 부모의 무관심·이해부족, 언어적·신체적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갈등관계로 조성될 때 적대적인 편향이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등 부정적인 방법과 물리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가족관계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라고 인식한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식(안윤일, 2000)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 직접적인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신희천, 2009).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와 청소년의 갈등이 일어나는 영역은 대부분 학업, 집안일, 불순종, 일반적 짜증 등 일상적인 가족생활 영역이었으며, 오히려 성(性)이나 약물, 종교, 정치 등 보다 광범위하고 사회적인 생활양식에 관한 갈등은 적었다(Montemayor, 1982 ; 이은주, 2004. 재인용). 또 부모와 청소년 자녀 모두가 성, 약물, 종교, 정치 등 잠재적으로 논쟁 가능한 이슈에 관해서는 대화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Callan, 1990 ; 백미숙, 2000.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 갈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30쌍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별적 심층 면접한 결과,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은 주로 일상적 가족생활과 관련되어 일어났으며 특히 어머니와의 갈등은 잦고 오래 지속된 반면 아버지와 겪는 갈등은 대체로 사소하며 단편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했다(이주옥,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이 가족 내의 규칙 때문에 일어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로 인해 일어남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변인에 따라 갈등 정도나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진로 및 성적,

미디어 사용, 일상생활, 가족 관계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심리적 웰빙

웰빙(Well-being)이라는 말은 ‘well(건강한, 만족스러운, 좋은)’과 ‘being(삶, 존재, 생명)’의 합성어로 행복이나 안녕을 말한다. 웰빙은 말 그대로의 용어를 풀이하자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행복과 안녕을 뜻하는 말로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뿐 아니라,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성취감의 정도, 여가생활이나 가족 간의 유대,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웰빙의 척도로 삼는다.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자신과 공동체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가 웰빙이다(김삼선, 2011).

즉, 웰빙의 개념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중시하고 의미있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웰빙이 최근에는 하나의 문화코드로써 다양하고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김삼선, 2011).

웰빙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미국에서는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건강과 함께 환경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소유자’(이미숙, 2004)로 정의 하였다. 웰빙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고도 산업화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앗아간 면도 적지 않아 현대 산업사회는 구조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富)를 강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를 축적하는 데 소비한다. 따라서 물질적 부에 비해 정신 건강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웰빙은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문화 또는 그러한 양식을 말한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는 웰빙 라이

프를 지향한 사람들 사이에서 슬로푸드(slow food)운동이 시작되었고, 패션에 있어서도 외면적 화려함보다 내면적 아름다움을 중요시 여기는 이너뷰티(Inner beauty)가 유행하였다. 미국에서는 부르주아의 물질적 실리와 보헤미안의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는 보보스(bobos)라는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하되 정신적인 여유를 추구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천천히 일해도 일을 잘한다”는 의미의 슬로비족(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 2002년 유럽에서는 “저속으로 기어를 바꾼다”는 의미의 다운시프트족이 유행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정신적 웰빙이 중요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연아카데미편집부, 2004).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웰빙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상의 일종이며, 주로 40~50대의 기성세대들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웰빙은 주로 20~30대의 연령대로 이루어져 미국, 일본의 경우보다 연령이 낮고 추구하는 방향성도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과 여유를 더 강조한다(김선규, 2005).

최근에는 삶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개인 삶의 행복감,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권석만, 2008).

이에 대하여 Ryan & Deci(2001)는 웰빙을 두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 조망하였다. 하나는 가치나 의미, 그리고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는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이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대변되는 주관적 웰빙이다(신아영, 2006).

Diener(1984)는 주관적 관점에서 행복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행복을 개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보았다. 주관적 웰빙이란 개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주관적 웰빙이 의미하는 웰빙이란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며, 긍정적 정서는 많이 그리고 부정적 정서는 적게 경험하는 것(권영석, 2012)을 의미한다.

주관적 웰빙을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하는 입장은 많은 지지를 받아 왔으나 쾌락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삶의 질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으로 측정하려는 접근이고, 이러한 접근은 삶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Ryff & Keyes 1995).

이러한 비판에서 삶의 질을 단순하게 쾌락적 관점에서 측정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며 얻어지는 행복에 초점을 맞춰진 행복론적 관점에서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에서 나타난 것이 심리적 웰빙이다.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는 심리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만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Ryff(1989)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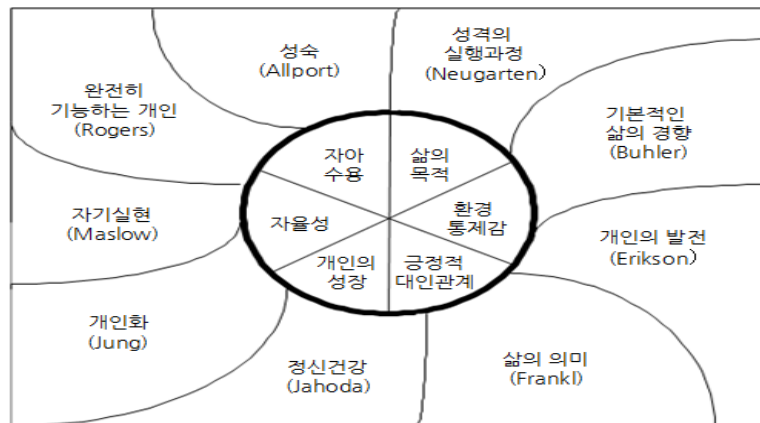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에 더하여 집단 혹은 사회적 수준에서 개인의 웰빙 요소 중 하나로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을 제시(Keyes, 1998)하였다. 사회적 웰빙이란 자신이 속한 환경과 사회의 기능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개인은 사회구조와 공동체 속에 내재해 있고 끊임없이 사회적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에 주관적 웰빙, 심리적 웰빙과 더불어 사회적 웰빙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Keyes(2002)에 따르면,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 상태와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웰빙은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및 사회적 웰빙이 포함된다. 정신적 웰빙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과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며, 불안과 분노 등 부정적 정서를 적게 느낀다. 또한 개인의 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심리적 웰빙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사회적 웰빙까지 포함하고 있다(이현수, 2008).

정신적 웰빙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웰빙이 높은 사람이다. 정서적 웰빙이 높은 사람은 만족감이 높고 부정적인 정서는 적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심리적 웰빙이 높은 사람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내면적인 기준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하며 친밀감을 느

끼면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 뿐만 아니라 늘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 인생의 지침이 되는 목표나 신념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적 웰빙이 높은 사람은 사회에 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긍정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으며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권영석, 2012)

Ryff(1989)는 Maslow(1968)의 자아실현, Rogers(1961)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 Jung(1933)의 개성화, Allport(1961)의 성숙, Erikson(1959)의 기본적 삶의 방향, Buhler & Massarik(1968)의 삶의 경향과 충실성, Neugarten(1973)의 성격의 변화, Jahoda(1958)의 긍정적인 정신건강 기준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을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 차원의 척도를 개발하여 이것을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척도라고 하였다. 6개의 구성요소를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 심리적 웰빙의 구성요소와 이론적 배경(윤혜선, 2010).

이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의 합을 의미한다.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며,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들

말한다. Ryff(1989)는 연구를 통해 심리적 웰빙을 구성하는 6개요인의 개념들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도와 함께 이들 차원들이 삶의 질을 잘 대표하는지를 검토하였다(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 그 결과 PWBS의 6요인 차원들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이 서로 상이함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심리적 웰빙을 이루는 6요인들이 서로 관련성을 보이지만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차원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Ryff와 Keyes(1995)는 전국단위의 대단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yff(1989)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PWBS의 6요인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요인의 구조가 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되어짐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6개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아수용(self-acceptance)

자아수용은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 가치관, 성격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즉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수용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설기문, 2001). 이 개념은 자아실현의 특성뿐 아니라, 성숙이론, 정신건강, 낙관적인 기능 등의 이론으로부터 정의되었다. 생애(life-span)이론 역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포함하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수용은 장기간에 걸친 일종의 자기평가로서,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Ryff, 1989; 박미선, 2011 재인용).

자기수용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좋은 점들은 물론 나쁜 점들을 포함한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인지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낀다고 하였다. 반대로 자기수용의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실망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점에 대하여 괴로워하면서,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Ryff and Keyes, 1995; 김이행, 2013 재인용).

사람은 자기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도 발견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발견하게 된다. 이 경우에 흔히 긍정적인 면은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부정적인 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사람들은 은폐하고 가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외부로 내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행동은 가식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가식적인 행동은 서로 신뢰해야 할 인간관계의 형성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2)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긍정적 대인관계는 긍정적이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가장 중심적인 특성으로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협상하고, 나누고, 감정이입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인관계 측면을 의미한다(Ryff, 1989; 박미선, 2011 재인용).

적절한 대인교류는 사회인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통해 얻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편안함과 애정을 주고받는 것, 감정적 지지를 얻는 것, 문제에 대해 충고를 받거나 조언을 해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아상을 발전시키는 것 등이다. 이것은 대처를 잘 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한규석, 2002)으로 나타난다.

긍정적 대인관계의 점수가 높으면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있고, 강한 애정과 친밀감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대인관계란 주고받는 것임을 이해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대인관계의 점수가 낮으면 타인과의 친밀감이나 신뢰관계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며, 타인을 배려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며,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타인과의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yff and Keyes, 1995; 김이행, 2013 재인용).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일 때,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온정, 친밀감, 연민이 우리의 모습에서 잘 나타날 때 비롯된다.

(3)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개인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스스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심

리적 웰빙의 모든 측면 중에서 자기실현주의의 개념에 가장 밀접한 것이 개인의 성장으로, Sheldon & Kasser(2001)는 개인이 성숙한 목표를 추구해 갈수록 주관적 웰빙과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성숙이란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발달을 통해 논의되어야 적응과 변화를 포함한 그 이상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인자, 1982). 즉, 한 개인의 건강한 심리발달 뿐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인간을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적 성장과 사회심리적 성장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김명소 등(2001)은 여성에게는 이제까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는 자신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그러한 변화의지가 있다는 것(개인적 성장)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4)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삶의 목적은 인간의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며 긍정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개념이다. 인간의 생활에서 주된 관심사는 개인의 안녕이며, 어떻게 하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가이다. Allport(1961)의 성숙이론에서도 삶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애이론에서도 목표의 전환이 삶의 단계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박미선, 2011 재인용).

동양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보다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가가 자기 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을 구성하는 외적 특성들, 예를 들면, 외모, 사회적 지위, 재산, 학벌 등 쉽게 눈에 띄는 정보들이 타인의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달성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박은아, 2003).

(5) 자율성(autonomy)

자율성이란 그리스어로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여하다’라는 뜻이다. 자율성은 능력감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Deci and Ryan, 2000). 심

리적 웰빙의 다차원적인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개념적 구조들은 자기결정, 독립성, 내부로부터 나오는 행동의 규제와 같은 개념들을 강조하고 있다(박미선, 2011 재인용). 자율성이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목적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를 말하는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행동이나 심리적인 상태의 수준 또는 질로 표현된다. Ryff(1989)는 자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며,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하며,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6) 환경 통제감(environmental mastery)

Allport(1961)는 환경 통제감은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생애이론에서도 환경 통제감은 복잡한 환경을 통제하고 다룰수 있는 능력 및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통해 주변 세계에 영향을 행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박미선, 2011 재인용). 환경 통제감은 자아수용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웰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 즉 환경지배력은 우리나라 성인남녀 모두의 삶의 질(심리적 웰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김명소, 2001). Ryff(1989)는 환경지배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구성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복잡한 외적인 활동 계획을 잘 조절한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감각을 갖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 “생활에 목표와 목적이 있다” 등이다.

즉, 심리적 웰빙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웰빙과는 달리 이론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말한다(김명소 등, 2001). 심리적 웰빙의 6가지 차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Ⅱ-1>과 같다.

<표Ⅱ-1> 심리적 웰빙의 6가지 차원

요인	구분	정의
자아수용	높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 자신에게 좋은 점들은 물론 나쁜 점들을 포함한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인지하고 수용한다. • 자신의 과정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낀다.
	낮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 한다. •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실망한다. • 자신의 갖고 있는 나쁜 점에 대하여 괴로워한다. •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긍정적 대인관계	높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다. • 타인의 행복(welfare)에 관심이 있다. • 강한 애정, 친밀감,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다. • 대인관계란 주고받는 것임을 이해한다.
	낮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 타인에 대하여 따뜻하거나 개방적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좌절감을 느낀다. • 타인과의 중요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
개인적 성장	높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느낀다. •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되어감을 느낀다. •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행동이 향상됨을 느낀다. •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간다.
	낮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침체에 빠져있다고 느낀다. • 시간에 따라 성장하거나 발전되어 간다고 느끼지 못한다. •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낀다. •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삶의 목적	높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 • 생활 목표에 목적이 있다.
	낮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 삶의 목표나 방향 감각이 거의 없다. • 과거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 삶의 의미를 부여할 신념이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자율성	높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다. •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하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 • 개인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자신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하여 기준 내에서 조절한다.
	낮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가에 신경을 쓴다. •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한다. •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동조한다.
환경 통제감	높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 복잡한 외적인 활동 계획을 잘 조절한다. •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
	낮은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 주위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다. •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출처: Ryff(1989)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기존의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 Huebner(1994)의 학생들의 다차원적 삶의 만족도 검사(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s)와 김형태 (1989)의 자아정체감 척도, Crumbaugh와 Maholick(1981)의 삶의 목적수준 검사 (Purpose In Life : PIL), 이동혁(1999)의 학교생활의 질 척도, 김용래(1993)의 학

교적응 척도를 토대로 박정희(2007)가 재구성하였다.

<표Ⅱ-2>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안녕감 척도

요인 명칭	구성내용
가족관계	• 가족 혹은 부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지각정도
교사관계	• 교사와의 관계 및 상호신뢰와 존중의 정도
친구관계	• 친구와의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 및 상호신뢰의 정도
긍정적 자기인식	•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삶의 태도를 의미
자기 주장성	•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고 반영시키는 정도
학습주도성	•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하는 정도

*출처: 박정희(2007).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학급단위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사회 심리적 웰빙에 대한 그간 연구들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Fordyce(1988)는 웰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심리적 웰빙, 주관적 웰빙, 행복감, 삶의 만족도 및 사기, 주관적 삶의 질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유사하고, 상호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심리적 웰빙은 학자들에 따라 주관적 웰빙이라고 명명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심리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의 삶을 바라보는 같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임전옥, 2003).

개인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도 높았다(신원, 2007). 박창열(2013)은 청소년들의 학업 소진과 정신적 웰빙과 심리적 부적응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장선희(2013)는 학습열정과 사회·심리적 웰빙은 정적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덕희(2008)는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교사에 관한 스트레스 모두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 추구와 같은 대처방식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남녀의 차이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심리적

웰빙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3학년생과 대학교 1학년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시험부담이 큰 고등학교 2학년의 심리적 웰빙 크기가 가장 낮았으며, 비록 비현실적 일지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지닐수록 이들의 심리적 웰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성애, 1999). 심리적 웰빙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차경호, 2004).

기존의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웰빙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적 웰빙 중에서 주관적 웰빙을 제외한 사회심리적 웰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심리적 웰빙은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 5개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Ⅲ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소재의 중·고등학교 남, 여 학생 400명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아동기동안 의존해오던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서 부모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웰빙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성별과 학교 급별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64명(54.6%), 여자 136명(45.3%)이었으며,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 204명(68%), 고등학생 96명(32%)이었다.

<표.Ⅲ-1> 연구대상의 성별, 학교 급별 특성

(N=300)

항목	구분	N	비율(%)
성별	남	164	54.6
	여	136	45.3
학교	중학생	204	68
	고등학생	96	32
전체		300	100

2. 연구절차

연구대상자 선정은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300명을 유의표집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14일부터 18일에 걸쳐 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9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5일 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총 400부를 배포하여 350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누락되거나 일률적인 답변을 보인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부수 300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부모와의 갈등 척도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권오(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로 임지훈(2010)이 수정 보완하여 40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 및 성적 (5문항), 미디어 사용(12문항), 일상생활 (16문항), 가족관계(7문항)으로 총 40문항 5요인으로 Likert Scale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갈등의 유형에 따라 4개의 하위유형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각각의 하위변수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분분석)으로 범주화하여 분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7이었고, 진로 및 성적 .91, 미디어 사용 .84, 일상생활 .85, 가족관계 .83로 나타났다. 문항구성은 <표.Ⅲ-2>과 같다.

<표.Ⅲ-2> 부모와의 갈등 척도

갈등척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진로 및 성적	5	.91
미디어 사용	12	.84
일상생활	16	.85
가족관계	7	.83

2. 사회심리적 웰빙(well-being)척도

사회심리적 웰빙을 규명하기 위한 서향리(2011)의 논문 중 사회심리적 웰빙 척도(PWBS)는 성인대상으로 개발 되어 사용한 것을 토대로 박정희(2007)가 청소년 대상에 맞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이것을 장선희(2013)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자기인식 (6문항), 자기 주장성(3문항), 가족관계 (4문항), 교사관계(4문항), 친구관계(3문항)으로 총 20 문항 5요인으로 Likert Scale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0~.86이었고, 긍정적 자기인식 .84, 자기주장성 .85, 가족관계 .83, 교사관계 .81, 친구관계 .82로 나타났다. 문항구성은 <표.Ⅲ-3>과 같다.

<표.Ⅲ-3>사회심리적 웰빙 척도

사회심리적웰빙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긍정적 자기인식	6	.84
자기주장성	3	.85
가족관계	4	.83
교사관계	4	.81
친구관계	3	.82

4.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와의 갈등, 사회심리적 웰빙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이 성별, 학교 급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과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의 일반적 경향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및 성적 갈등, 일상생활 갈등 및 가족관계 갈등을 독립변인으로, 사회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별, 학교 급별에 따라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의 차이

1-1. 성별과 학교 급별에 따른 부모-자녀의 갈등의 차이

성별과 학교 급별에 따른 부모와의 갈등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표.IV-1>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3.56점)이 여학생(3.2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 및 성적, 미디어사용, 일상생활,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문충배(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반응이 남학생(37.7%), 여학생(37.6%)로 남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견 충돌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의견 충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김종환(1981)의 연구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 대한 차이를 보면 고등학생(3.56점)이 중학생(3.29점)보다 부모와의 갈등이 보다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진로 및 성적, 미디어사용, 일상생활,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IV-1> 성별과 학교 급별에 따른 부모-자녀의 갈등의 차이

(N=300)					
구분	성별/학급	N	M	SD	t
부모와의 갈등	남	164	3.56	.648	4.67***
	여	136	3.29	.692	
	중학생	204	3.32	.726	-4.657***
	고등학생	96	3.62	.554	

*** $p < .001$

1-2. 학교 급별에 따른 부모와의 갈등 하위요인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진로 및 성적, 가족관계, 미디어 사용, 일상생활)을 중, 고등학교별로 비교하여 조사해 본 결과를 <표.IV-2>와 같다. 중, 고등학교 모두 진로 및 성적에 대한 갈등(중학교: 41.66%, 고등학교: 42.7%)이 1순위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가족관계(중학교: 24.54%)가 2순위, 미디어사용(중학교: 21.55%)이 3순위, 일상생활(중학교: 12.25%)이 4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은 미디어사용(고등학교: 30.2%)가 2순위, 가족관계(고등학교: 16.66%)이 3순위, 일상생활(고등학교: 10.41%)이 4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이 두 집단 모두 진로 및 성적, 일상생활의 순서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영나(200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중, 고등학교별로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갈등은 두 집단 모두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IV-2> 학교 급별에 따른 부모와의 갈등 하위요인

중(N=204), 고(N=96)

순 위	중학교		고등학교	
	갈등	빈도(%)	갈등	빈도(%)
1	진로 및 성적	85(41.66)	진로 및 성적	41(42.7)
2	가족관계	50(24.54)	미디어 사용	29(30.2)
3	미디어 사용	44(21.55)	가족관계	16(16.66)
4	일상생활	25(12.25)	일상생활	10(10.41)

1-3 . 성별과 학급 급별에 따른 사회심리적 웰빙의 차이

성별과 학교 급별에 따른 사회심리적 웰빙의 차이는 <표.IV-3>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3.60점)이 남학생(3.48점)보다 부모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하고, 배성애(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교급별에 따라서 사회심리적 웰빙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성애(1999)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보다 상대적으로 시험부담이 큰 고등학교 2학년의 심리적 웰빙의 크기가 가장 낮았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지닐수록 심리적 웰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3> 성별과 학급 급별에 따른 사회심리적 웰빙의 차이

(N=300)

구분	성별/학급	N	M	SD	t
사회심리적 웰빙	남	164	3.48	.619	2.24*
	여	136	3.60	.534	
	중학생	204	3.53	.592	-.705
	고등학생	96	3.57	.550	

* $p < .05$

2.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의 일반적 경향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인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및 하위요인(진로 및 성적 갈등, 미디어 사용 갈등, 일상생활 갈등, 가족관계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 및 하위요인(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4>에 제시하였다.

<표.IV-4>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사회심리적 웰빙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M	SD(±)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진로 및 성적 갈등	2.15	.461
	미디어 사용 갈등	1.91	.459
	일상생활 갈등	1.95	.732
	가족관계 갈등	2.13	.712
사회심리적 웰빙	긍정적 자기인식	2.42	.481
	자기 주장성	3.87	.026
	가족관계	2.92	.837
	교사관계	2.91	.961
	친구관계	3.06	.053

<표.IV-4>에 의하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갈등이 높고, 낮을수록 지각된 갈등이 낮음을 의미한다. 전체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평균점수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진로 및 성적 갈등 1.95점(SD=0.732), 미디어 사용 갈등 1.91점(SD=0.459), 일상생활 갈등 2.15점(SD=0.461), 가족관계 갈등 2.13점(SD=0.712)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중에서 진로 및 성적 갈등이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 갈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웰빙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 정도가 높고,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전체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웰빙 평균점수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자기인식 2.42점(SD=0.481), 자기주장성 3.87점(SD=0.026), 가족관계 2.9점(SD=0.837), 교사관계 2.91점(SD=0.961), 친구관계 3.06점(SD=0.053)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웰빙의 하위 영역 중 긍정적 자기 인식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의 상관관계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및 하위요인과 사회심리적 웰빙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IV-5>과 같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r=-.12$, $p<.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각 $r=-.20$, $r=-.15$, $p<.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생활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미디어 사용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디어 사용 갈등은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각 $r=-.43$, $r=-.13$, $r=-.21$, $p<.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디어 사용 갈등이 높을수록 가족, 교사 및 친구관계와 관련된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와는 반대로, 진로 및 성적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r=.19, p<.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진로 및 성적 갈등은 교사관계와 친구관계(각 $r=.27, r=.41,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진로 및 성적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높음을 의미하며, 특히 교사 및 친구관계와 관련된 웰빙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과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관계는,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 교사관계, 친구관계 모두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관계 웰빙은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r=-.43, p<.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 웰빙이 낮을수록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IV-5>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총점	1.00										
2. 진로 및 성적 갈등	.49*	1.00									
3. 미디어 사용 갈등	.73*	.02	1.00								
4. 일상생활 갈등	.87*	.26*	.64*	1.00							
5. 가족관계 갈등	.59*	.36*	.14	.25*	1.00						
6. 사회심리적 웰빙 총점	-.12*	.19*	-.04	-.20*	-.15*	1.00					
7. 긍정적 자기인식	.04	-.02	.20*	.05	-.16*	.73*	1.00				
8. 자기 주장성	.00	.09	.09	-.07	-.05	.87*	.65*	1.00			
9. 가족관계	-.43*	.00	-.26*	-.43*	-.36*	.71*	.26*	.56*	1.00		
10. 교사관계	-.02	.27*	-.04	-.13*	-.01	.85*	.52*	.70*	.41*	1.00	
11. 친구관계	-.06	.41*	-.13*	-.21*	-.04	.91*	.59*	.67*	.64*	.78*	1.00

* $p<.05$

3-1. 중학생의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의 관계

중학생이 지각 한 부모와의 갈등 및 하위요인과 사회심리적 웰빙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IV-6>과 같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가족관계 웰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r=.35, p<.05$)를 보였고, 이는 중학생이 부모와 갈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웰빙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진로 및 성적 갈등은 친구관계 웰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42, p<.05$)을 보였고, 일상생활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각 $r=-.20, r=-.15, p<.05$)을 보였다. 이는 일상생활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미디어 사용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요인인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와 관련된 웰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각 $r=-.43, r=-.13, r=-.21, p<.05$)을 보였다, 이는 미디어 사용 갈등이 높을수록 자기 주장성 웰빙은 높아지나 가족, 교사 및 친구관계와 관련된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와는 반대로, 진로 및 성적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r=.19, p<.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진로 및 성적 갈등은 친구관계(각 $r=.42,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진로 및 성적 갈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 웰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사회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과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 교사관계, 친구관계 모두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관계 웰빙은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r=-.35, p<.05$)을 보였다. 이는 가족관계 웰빙이 낮을수록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IV-6> 중학생의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사회심리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총점	1.00										
2. 진로 및 성적 갈등	.62*	1.00									
3. 미디어 사용 갈등	.64*	.02	1.00								
4. 일상생활 갈등	.86*	.45*	.55*	1.00							
5. 가족관계 갈등	.64*	.41*	.18*	.28*	1.00						
6. 사회심리적 웰빙 총점	-.04	.10	-.03	-.12	.01	1.00					
7. 긍정적 자기인식	.09	.06	.25*	.04	-.07	.85*	1.00				
8. 자기 주장성	-.11	-.10	-.04	-.08	-.08	.86*	.72*	1.00			
9. 가족관계	-.35*	-.14	-.19*	-.40*	-.18*	.75*	.46*	.76*	1.00		
10. 교사관계	.10	.15	.04	.02	.09	.82*	.73*	.50*	.35*	1.00	
11. 친구관계	.10	.42*	-.21*	-.09	.26	.90*	.66*	.70*	.61*	.77*	1.00

* $p < .05$

3-2.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의 관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및 하위요인과 사회심리적 웰빙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IV-7>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r = -.17, p < .05$)을 보였다. 이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각 $r = -.29, r = -.41, p < .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생활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사회심리적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로 및 성적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r = .54, p < .05$)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진학, 취업과 관련된 진로 및 성적에 대한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심리적 웰빙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 및 성적 갈등은 긍정적 자기인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 주장성, 가

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각 $r=.42, r=.43, r=.63, r=.64, p<.05$)을 보였다. 즉 진로 및 성적 갈등이 긍정적 자기 인식 웰빙을 제외한 갈등이 높을수록 자기 주장성,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미디어사용 갈등은 가족관계와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r=.35, p<.05$)을 보였으며 미디어사용 갈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웰빙 요인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갈등은 긍정적 자기 인식과 자기 주장성 웰빙 요인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 관계와 관련된 웰빙과는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각 $r=.46, r=.32, r=.35, p<.05$)을 보였다. 이는 일상생활 갈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웰빙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가족관계 갈등은 자기 주장성, 교사관계와 관련된 웰빙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긍정적 자기인식, 가족관계, 친구관계와 관련된 웰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각 $r=.12, r=.81, r=.46, p<.05$)을 보였다.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기인식, 가족관계, 친구관계 웰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심리적 웰빙 하위요인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r=.17, p<.05$)을 보였으며,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친구관계와 관련된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표.IV-7>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사회심리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총점	1.00										
2. 진로 및 성적 갈등	.08	1.00									
3. 미디어 사용 갈등	.93*	.08	1.00								
4. 일상생활 갈등	.89*	-.14	.75*	1.00							
5. 가족관계 갈등	.42*	-.25	.30*	.25*	1.00						
6. 사회심리적 웰빙 총점	-.17*	.54*	-.07	-.29*	-.41*	1.00					
7. 긍정적 자기인식	.09	.10	.16	.05	-.12*	.77*	1.00				
8. 자기 주장성	.13	.42*	.22*	-.05	-.10	.72*	.59*	1.00			
9. 가족관계	-.49*	.43*	-.35*	-.46*	-.81*	.66*	.19*	.29*	1.00		
10. 교사관계	-.14	.63*	-.13	-.32*	-.13	.88*	.59*	.63*	.45*	1.00	
11. 친구관계	-.20*	.64*	-.08	-.35*	-.46*	.92*	.68*	.47*	.65*	.79*	1.00

* $p<.05$

4.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및 성적 갈등, 일상생활 갈등 및 가족관계 갈등을 독립변인으로, 사회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IV-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진로 및 성적 갈등, 일상생활 갈등, 가족관계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 변량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96)=16.472, p<.05$]. 사회심리적 웰빙에 대한 일상생활 갈등의 설명력은 3.7%였고[$F(1,298)=12.421, p<.05$], 일상생활 갈등이 증가할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3, p<.05$]. 이것은 전귀연(2006)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갈등의 원인이 일상적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진로 및 성적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은 각각 사회심리적 웰빙의 6.1%, 3.6%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진로 및 성적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28, p<.05$],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5, p<.05$]. 진로 및 성적 갈등이 있다는 말은 자신의 직업적 역할 능력이나 현재,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기 이해를 통한 사회심리적 웰빙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가족 관계 갈등은 직접적인 부모-자녀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부부갈등, 형제-자매 갈등 등의 가족 내 다양한 갈등 상황이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며,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8> 진로 및 성적 갈등, 일상생활 갈등, 가족관계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	변인	β	R	R^2	ΔR^2	F
1	일상생활 갈등	-.200	.200	.040	.037	12.421*
2	일상생활 갈등	-.268	.322	.104	.098	17.155*
	진로 및 성적 갈등	.261				
3	일상생활 갈등	-.233	.378	.143	.134	16.492*
	진로 및 성적 갈등	.328				
	가족관계 갈등	-.215				

* $p < .05$

V .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남녀 간 중, 고등학생 간의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및 하위요인과 사회심리적 웰빙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성별, 학교 급별에 따른 사회심리적 웰빙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은 남학생(3.56점)이 여학생(3.2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의 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사회심리적 웰빙은 여학생(3.60점)이 남학생(3.4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남녀의 성차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웰빙의 관계에서도 적용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특히, 성별에 의한 차이가 주로 정서적 민감성이나 순응 및 의존성과 관련된 성격 특성에서 야기된다(Berk, 2006)는 측면에서 적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하고 어른들과 또래의 요구에 더 잘 순응하는 특성으로 여자 청소년이 가족관계나 자기 긍정적 인식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오혜경, 2007).

학교 급에 따라서는 부모와의 갈등은 고등학생(3.56점)이 중학생(3.2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진로 및 성적, 미디어사용, 일상생활,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시기로 행동에 대한 제약을 간섭으로 여길 수 있다. 또한, 갈등 요인 중에서 진로 및 성적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입시, 성적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오는 학생들의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부모와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사회심리적 웰빙은 학교 급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은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갈등이 가장 높았고, 진로 및 성적 갈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웰빙에서 긍정적 자기 인식이 가장 높고 자기 주장성, 가족관계, 교사관계는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친구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모간 일상 생활 갈등이 큰 이유는 아동기의 보호와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역할을 하려는 청소년기의 특징과 연관이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적 역할을 견제하며, 권위를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독립하려는 청소년의 힘의 불균형에서 일상생활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영나(2000)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갈등을 조사한 결과를 용돈, 부모의 불이해, 컴퓨터·핸드폰 사용 등의 순서로 일상 생활 갈등이 학업, 진로 문제, 대인관계 보다 크다는 것과 일치한다.

셋째,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및 하위요인과 사회심리적 웰빙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낮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미디어 사용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디어 사용 갈등은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디어 사용 갈등이 높을수록 가족, 교사 및 친구관계와 관련된 웰빙이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와는 반대로, 진로 및 성적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과 교사관계, 친구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및 성적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높음을 의미하며, 또한 진로 및 성적 갈등이 교사 및 친구관계와 관련된 웰빙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과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 주장성, 교사관계, 친구관계 모두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관계 웰빙은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 웰빙이 낮을수록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넷째,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 및 성적 갈등, 일상생활 갈등, 가족관계 갈등은 사회심리적 웰빙 변량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웰빙에 대한 일상생활 갈등의 설명력은 3.7%였고, 일상생활 갈등이 증가할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성인에 비해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친구, 교사, 친척들을 포함한 주위 인간관계에 대해서 개인이 지지 체계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고, 일상생활의 갈등수준의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 및 성적 갈등과 가족관계 갈등은 각각 사회심리적 웰빙의 6.1%,

3.6%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진로 및 성적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청소년은 진로 및 성적 갈등은 없을 수 있으나, 사회심리적 웰빙이 낮을 수 있다. 또한 진로 및 성적 갈등이 있다는 말은 학업은 소홀히 하지만 자신의 직업적 역할 능력이나 현재,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기 이해를 통한 사회심리적 웰빙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및 성적 갈등이 사회적 웰빙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Marcia의 청소년의 정체감 이론과 관련이 있다. Marcia는 청소년기 정체감의 형성 위기(crisis)를 직업선택, 이념적 신념과 같은 개인적 정체감의 측면에 도달함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시기를 의미하였으며, 전념이란 직업선택, 이념적 신념에 있어서 확고한 결정을 하고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장휘숙, 2004). 청소년의 정체감이 개인에게 과거와의 계속성, 미래에 대한 안정적 태도에 대한 허용과 지각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 고민과 갈등이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중,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 지각된 부모갈등과 심리적 웰빙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일상생활 갈등이 증가할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및 성적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 고등학생에 있어 지각된 부모의 갈등이 심리적 웰빙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갈등의 요인에 따라 성별과 학교 급별로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웰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웰빙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모와의 갈등이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그 영향은, 가정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많은 관계 중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부모와의 긍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갈등해결방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

2. 제언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의 선정에 있어 중·고등학생 300명 중 남녀 성·별, 중·고등학교의 대상자의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연구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표집 대상을 성별, 학급별로 균등하게 선정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모든 변인은 자기보고식 지필검사를 통해 수집하였기 때문에 참여자의 자기 방어나 사회 바람직성과 같은 문제점이 반영되어 실제 수보다 측정치가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자기 보고식 측정 이외의 면접, 실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셋째, 중,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밝혀보고,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 및 하위요인과 사회심리적 웰빙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지각된 부모와의 갈등이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에 대해 연구결과를 검토해 분석하였는데,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인과 관계를 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모와의 갈등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생에 대한 횡단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권영석(2012).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긍정적 또래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삼선(2011).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자아효능감과 생활만족 및 심리적 웰빙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규(2005). 웰빙(Well-Being) 문화와 관련한 신 개념 김치냉장고 디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1996). 어머니 - 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행(2013).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웰빙을 통해 행위결과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균형과 일중심 근로윤리의 조절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자(1982). Ralph Ellison 소설에 나타난 자아탐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옥(2011).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과 용서, 문제행동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환 (1981). 청년기에 있어서의 갈등실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화(2002). 청소년에 대한 엽기문화의 영향 분석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영숙(2009).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정서적 반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2004). 청소년기 자율성 욕구와 부모 허용간 불일치가 우울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의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충배(1988).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 대전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승희(2001). 부부갈등과 자아개념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선(2011). 성격유형에 따른 감성지능, 심리적 웰빙, 직무성과 간의 인과관계 연구 : 서울지역 특급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2005).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아(2003).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의 상징놀이능력과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2007).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학급단위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열(2013).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소진 관계에서 긍정적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애(1999).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들에 관한 탐색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석훈(1984). 갈등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신아영(2006). 정서 마음챙김이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신체 증상 및 웰빙에 미치는 효과 : 여대생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원(2007).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 포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병조(1983).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의 갈등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윤일(2000).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대인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선호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희(2007). 자녀와 함께하는 교회 아기학교 프로그램이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권오(200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2004). 아동의 정서지능과 지각된 부모행복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나(2000). 가정내 갈등 상황에서 청소년의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숙명

-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국(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자(2014).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4). 초등학교 상담실태 및 교사와 아동의 상담에 대한 요구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 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전옥(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훈(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희(2013). 체육수업에서의 학습열정과 기본심리욕구 및 사회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재선(2009). 청소년이 지각한 자율성, 부모양육행동, 부모-자녀 갈등과의 상관관계 : 성별과 연령 변인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인(2013). 남녀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2006). 부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정 청소년의 빈곤문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덕희(2008).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의 통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학술지

- 구본용, 신현숙(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

- 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16(3) 121-145.
- 권석만(2008). 왜 긍정의 힘에 관심을 가져야하는가? 한국인간발달학회, 2008 1-13.
- 김명소(2001). 심리학에서의 가족변인 동향고찰 및 향후연구 방향제시. 한국여성심리학회지, 6(3) 23-35.
- 김양희(1991). 가족학 연구와 갈등이론적 접근: 한국가족학 연구회 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 미시이론을 중심으로. 교문사.
- 김의철, 박영신(2002). IMF 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한국심리학회지, 8(2) 105-135.
- 김의철, 박영신(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3) 37-59.
- 김현수, 김현실(1997). 한국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1) 57-69.
- 설기문(2001). NIP와 마음다스리기. 한국정신과학학회.
- 신희천(2013).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1(2) 369-386.
- 신희천(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1(2) 439-464.
- 이미숙(2004). 생활양식으로서의 웰빙이론과 적용의 뿌리 찾기. 한국생활과학회, 13(3), 477-385.
-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3
- 차경호(2004). 자아존중감 및 여가활동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여가학연구. 2(2) 27-38.
- 한건환(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방식 및 문제 행동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한국청소년학회, 11(3) 385-402.
- 한규석(2002).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21(2) 67-95.

3. 단행본

- 교연아카데미편집부(2004).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 교연아카데미.
- 김태현(1999). 결혼과 사회. 성신대학교 출판부.
- 윤혜선(2010). 해피아트테라피. 이담북스.
- 소냐류보머스키(2007). 오혜경 역, how to be happy. 지식노마드.
- 이성록(2007). 갈등관리론. 미디어숲.
- 이현수(2005). 웰빙의 심리학. 대왕사.
- 장휘숙(2004). 청년심리학. 박영사.
- 최정훈 외인(1993).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법문사.
- 한규석(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학지사.

4. 인터넷 자료

- 한국건강증진재단 : <http://www.khealth.or.kr/Index.do>
- 한국청소년상담원 : <https://www.kyci.or.kr/userSite/index.asp>

5. 외국문헌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E.(1995). A value based index form easuring national quality of life. manuscriptinpreparation.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ing, or is it? Explorations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of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Abstract>

The Influence of Conflicts with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Psychosocial Wellbeing

Choi, Hyun Jin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 Kim, Hye Sook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 and influence of conflicts with parents perceived by Korean adolescents on psychosocial wellbeing.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300 male/female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Jeju-do. Using SPSS 20.0 program to examine the survey data,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like below.

First, regarding the differences in psychosocial wellbeing in accordance with conflicts with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sex, and school class, male students showed higher than female students. It means that male students

had higher conflicts in career, school record, media use, daily life, and family relationship than female students. In regard of psychosocial wellbeing, fe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male students, which means that female students have higher family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positive self-awareness, and self-assertiveness than male students.

In case of conflicts with parents in accordance with school class, high school students showed higher than middle school students, which can be interpreted that high school students have higher conflicts in career, school record, media use, daily life, and family relationship than middle school students. The psychosocial wellbeing did not show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school class. It means that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show the same level of family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positive self-awareness, and self-assertiveness.

Second, regarding the general tendency of the perceived conflicts with parents and psychosocial wellbeing, the conflicts with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were the highest in daily life while the conflicts in career and school record were the lowest. The positive self-awareness was the highest and the peer relationship was the lowest while self-assertiveness, family relationship, and teacher relationship were similar to each other.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correlations between the perceived conflicts with parents & sub-factors, and psychosocial wellbeing & sub-factors are like below.

Regarding the perceived conflicts with parents and psychosocial wellbeing, when the conflicts with parents were high, the psychosocial wellbeing was low. Among its sub-factors, when the conflicts in daily life and family relationship are high, the psychosocial wellbeing is low. Even though the conflicts in media use had no direct influence on psychosocial wellbeing, when the conflicts in media were high, the wellbeing related to family,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 was low. When the conflicts in career and

school record are high, the psychosocial wellbeing is high, especially, the wellbeing related to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sub-factors of psychosocial wellbeing and perceived conflicts with parents, all the positive self-awareness, self-assertiveness, teacher relationship, and peer relationship were not related to the perceived conflicts with parents. It means that the perceived conflicts with parents are high when the factors of family relationship are low.

Fourth,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perceived conflicts with parents on psychosocial wellbeing, adolescents highly considered that each individual would be the supporting system for surrounding human relations including family, peer, teacher, and relative. When the level of conflicts in daily life is low, the level of psychosocial wellbeing is high and the pain caused by stress is much. Also, when the conflicts in career and school record were higher, the psychosocial wellbeing was increased. When the conflicts in family relationship were higher, the psychosocial wellbeing was decreased.

In spite of such active researchers on the conflicts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most of the studies on psychosocial wellbeing is mainly targeting adults. Also,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on the interactions and influence of conflicts with parents on psychosocial wellbeing.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more deeply understand the conflicts with parents in daily life, and also to help adolescents enjoy more meaningful family/school life.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of parents education helpful to actually understand adolescents' mentality and values, and also to smoothly cope with/solve conflicts with children at home.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갈등과 사회심리적 웰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 표현이나 가까운 답을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설문지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알 수 없고 오직 연구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은 연구를 하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숙
연구자 최 현진

▶ 뒷장부터 설문이 시작됩니다(총 5페이지).

I.여러분들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1.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나의 학교는? ①중학교 ②고등학교

II.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본인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기 한 질문입니다.(빈칸이 있으면 귀한 자료가 손실되오니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시험이 인생의 전부인양 강조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크게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 데 공부하라고 재촉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공부하는 과목, 시간, 학원 다니는 것을 모두 부모가 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장래의 진로와 직업에 관해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선택하는 직업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6	컴퓨터만 켜면 게임과 채팅을 하는 줄 알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컴퓨터를 켜면 화부터 내면서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끄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공부에 방해되고 나빠진다고 컴퓨터를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귀가시간을 너무 일찍 잡아 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가시간이 늦으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심하게 추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1	귀가시간이 늦으면 비행청소년 취급하고 다음날 외출금지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계속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형제간에 차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형,누나 또는 오빠,언니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5	동생이 요구하면 더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머리염색을 싫어하고 머리 모양에 불만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옷을 자주 사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멋 부리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의 취향대로 옷을 고르고 입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TV 채널 선택권과 시청시간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한참 TV를 보는데 마음대로 돌리거나 꺼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23	부모님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①	②	③	④	⑤
24	EBS와 같은 교육방송만 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휴대폰 요금이 많다고 나무란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통화시간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휴대폰을 받기만 하고 걸지는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문자 보내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휴일에 늦잠을 자면 나무란다.	①	②	③	④	⑤
31	스스로 일어나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형제 간에 용돈을 차별하여 준다.	①	②	③	④	⑤
33	용돈을 제 때 안준다.	①	②	③	④	⑤
34	성적이 떨어지거나 다른 이유로 용돈을 깎는다.	①	②	③	④	⑤
35	용돈을 모자라게 주면서 많이 쓴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용돈을 줄 때 꼭 조건을 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37	부모님과 대화하면 이유 없이 짜증난다.	①	②	③	④	⑤
38	말만하면 나를 무시하고 부모님 마음대로 해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말이 안통하고 대화가 일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0	내 말을 믿지 않고 부모님의 의견만 내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장에 계속

Ⅲ. 다음 질문은 지난 한달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느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 숫자에 “√” 표시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설문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산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쉽게 포기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게 관심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에게 내가 닳고 싶은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집에 오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서로에게 이야기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우리 학교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예전보다 선생님과 관계가 더 편해지고 솔직하게 내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선생님들로부터 공부 외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줄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 기분을 이해해주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을 때도 있었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이 끝났습니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